

耽沒羅洲 小考*

姜 榮 峯**

1

이 글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韓國古地名辭典』(1995 :270)에 등장하는 '耽沒羅'가 과연 '제주도의 옛이름'인가를 밝혀보려는 데 있다. 이 사전에는 '耽沒羅'의 구체적인 출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생각하기로는 이른바 '法住記'(원제목은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이다)에 등장하는 '耽沒羅'를 원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논의는 다음 몇 가지 의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불교 사전에 의하면 '법주기'는 당나라 玄奘이 번역한 불경으로, 佛滅 후 800년 경에 勝師子國勝王部に 출생한 아라한 難提蜜多羅가 法住經에 의하여 來生에 佛法의 행할 바를 말한 것으로, 16나한이 이 세상에서 불법을 보호하는 순서와 대승의 3장, 성문의 3장 등의 일을 기록한 불경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불멸 후 800년 경'이라는 문구에 있다. '불멸 후 8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00여년 전이 된다. 중국으로 본다면 춘추전국 시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보다도 훨씬 앞선 시

* 이 글은 2001년도(11.15) 영주어문학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에 해당한다.

그 둘째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이 후한 명제 때이고, 우리나라로의 전래는 고구려인 경우 소수림왕 2년(372)의 일이며,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이 정설로 되어 있다. 혹자는 북방불교가 아니라 남방불교이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설령 남방불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남방불교가 전래된 것은 통일신라 때의 일이다.

이런 史實들을 고려한다면, 그 첫째 의문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제주도의 불교는 중국과 한반도를 건너뛰어서 아주 이른 시기에 제주도에 전래되었다는 말과 같은데, 이 가정은 지나친 비약의 결과다.

그 셋째는, 제6존자인 '跋陀羅'가 900阿羅漢을 거느리고 제주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때 제주도 인구가 얼마인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송나라 王溥가 편찬한 『당회요』 '탐라국' 조에는 '호구 8,000' (통일신라 시대)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이때의 '호구'는 '인구'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 제주도 인구 추이를 감안할 때 900아라한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다.

그 넷째는, "그러면 尊者庵은 어느 때, 누구에 의하여 건립된 庵子일까. 이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전해주는 文獻記錄은 없다. 다만 好事家들은 大藏經 法住記의 第6尊者 跋陀羅(bhadra)가 9백 명이나 되는 阿羅漢과 함께 나누어 살았던 耽沒羅洲를 濟州島라 比定하여 마치 尊者庵이 跋陀羅 尊者에 유래된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跋陀羅가 梵語 '브하드라'의 音寫[漢譯]인 이상 '耽沒羅洲'도 梵語의 音寫일 가능성이 많다"(高昌錫, 1996: 33)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탐몰라'도 梵語로 읽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열여섯 존자는 범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읽어야 하는 반면, 열여섯 존자가 거처했던 곳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1존자가 거처했던 '西瞿陀尼洲'가 한역되어 '西牛貨洲'라 말해지기도 하고, 한편 제4존자의 거처지인 '北俱盧洲'가 달리 범어로 '鬱多羅究留'라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제12~14존자의 거처 장소가 그냥 한역된 이름으로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범어를 찾기가 어렵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2

이 논의와 관련된 존자의 순서·존자 이름·나누어 살았던 곳과 阿羅漢의 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法住記」의 내용은 日本에서 간행한 『大正新修大藏經』에서 인용한다).

존자순	존자이름	거처장소·인원수	비고
제 1존자	賓度羅跋囉陀(惰)闍	西瞿陀(陁)尼洲·1,000아라한	
제 2존자	迦諾迦伐蹉	北方迦濕彌羅國·500아라한	
제 3존자	迦諾迦跋釐墮(墮)闍	東勝身洲·600아라한	
제 4존자	蘇頻陀(陁)	北俱盧洲·700아라한	
제 5존자	諾距羅	南瞻部洲·800아라한	
제 6존자	跋陀(陁)羅	耽沒羅洲·900아라한	
제 7존자	迦理迦	僧伽茶洲·1,000아라한	
제 8존자	伐闍羅弗多羅	鉢刺拏洲·1,100아라한	
제 9존자	戍博迦	香醉山中·900아라한	
제10존자	半託迦	三十三天·1,300아라한	
제11존자	囉枯羅	畢利 鷲瞿洲·1,100아라한	
제12존자	那伽犀那	半度波山·1,200아라한	
제13존자	因揭陀(陁)	廣脇山中·1,300아라한	
제14존자	伐那婆斯	可住山中·1,400아라한	
제15존자	阿氏迦(多)	鷲峯山中·1,500아라한	☆
제16존자	住(注)茶半託迦	持軸山中·1,600아라한	

• 손톱뭉음인 () 안은 고려대장경의 내용임.

존자의 이름은 우리들의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여러 불교 사전 등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이름들의 범어 표기와 그 뜻만을 보이기로 한다.

- 1존자: 賓度羅跋囉陀闍→Pinḍola-bharád-vâga
 - * pinḍola⇒불교사전에 의하면 姓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인 내용은 알 수 없다.
 - * bharád-vâga⇒skylark /N.of a sage
- 2존자: 迦諾迦伐蹉→kán-aka-vats-á
 - * kán-aka⇒gold /thorn apple
 - * vats-á⇒calf /young of an animal /child
- 3존자: 迦諾迦跋釐墮闍→kán-aka-bharád-vâga
 - * kán-aka⇒gold /thorn apple
 - * bharád-vâga⇒skylark /N.of a sage
- 4존자: 蘇頻陀→su-bindú
 - * su⇒ press out /extract
 - * bindú⇒ drop /globule
dot /spot
- 5존자: 諾距羅→nak-ulá
 - * nak-ulá⇒ungoose = mungoose /N.of a son Pându
- 6존자: 跋陀羅→bhad-rá
 - * bhad-rá⇒blessed, auspicious /fair, beautiful /good
/fortunate, prosperous my good friend /worthy sir
- 7존자: 迦理迦→kal-iká
 - * kal-iká⇒sixteenth part of the moon's disc / bud
- 8존자: 伐闍羅弗多羅→vág-ra-putrá
 - * vág-ra⇒thunderbolt /adamant /diamond
kind of military array

- * putrá⇒son /child / young of an animal
- 9존자: 수박가(戌博迦)→gīva-ka
 - * gīva-ka⇒living /alive
- 10존자: 半託迦→pánthâ(= páth)-ka
 - * pánthâ(= páth)⇒road /way /path
 - * ka⇒of Pragâpatior or Brahman
- 11존자: 囉怛羅→râhula
 - * râhula⇒of a son of Buddha
- 12존자: 那伽犀那→nâga-sena
 - * nâga⇒serpent
 - * sena⇒missile /dart
- 13존자: 因揭陀→aṅga-ga
 - * aṅga-ga⇒produced in /on or from the body/ bodily
- 14존자: 伐那婆斯→ván-a-vâs-in
 - * vâs-in⇒clothed / dressed in
 - staying /abiding /dwelling
- 15존자: 阿氏迦→a-gita
 - * a-gita⇒unconquered
- 16존자: 住茶半託迦→sūda-pánthâ(= páth)-ka
 - * sūda⇒well /mud of a driedup pool
 - * pánthâ(= páth)⇒road /way /path
 - * ka⇒of Pragâpatior or Brahman

이제 16존자가 거쳐해서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다.

16존자가 거쳐했던 곳으로는 {-洲}가 8개소, {-山(山中)}이 6개소, {-國}과 {-天}이 각각 1개소로 되어 있다.

• 西瞿陀尼洲(제1존자 거처지)

이 西瞿陀尼洲는 한역하여 달리 西牛貨洲라고도 한다. 西瞿陀尼洲는 {西}+{瞿}+{陀尼}+{洲}로 분석 가능한데, 한역된 이름과 견주어 보면 문제의 {瞿}={牛}, {陀尼}={貨}에 해당될 것이다.

불교사전 등에 의하면 西瞿陀尼洲는 “須彌山 서쪽에 있는 大洲의 이름”이라 하고, 이 洲中の 나무 아래에 一石牛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범어로는 Aparagodāniya로 되어 있으나, 범어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 āpa-ra⇒hinder /further /later /following /western

* gó⇒ox /bull

* dand-ya⇒to be punish /worthy of punishment

• 北方迦濕彌羅國(제2존자 거처지)

이 北方迦濕彌羅國은 {北方}+{迦濕彌羅}+{國}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迦濕彌羅}는 범어로 'kāsmīra'를 말한다. 곧 北印度 건타라국의 동북 산중에 있는 왕국으로, 지금의 카슈미르 지방이다.

* kāsmīra⇒belonging to Kasmira

• 東勝身洲(제3존자 거처지)

東勝身洲는 {東}+{勝身}+{洲}로 분석되며 범어로는 'pūrva-videhá'이다. 불교사전에 따르면, “수미산 동쪽으로, 칠금산과 칠위산 사이 잔물 바다 가운데 있으며 반달모양으로, 땅 모양은 동쪽이 좁고 서쪽이 넓어서 세로와 넓이가 九千由旬”으로 되어 있다.

* pūr-va⇒being in front /fore /eastern

* vi-dehá⇒N. of a country in the mordern Tirhut

• 北俱盧洲(제4존자 거처지)

北俱盧洲는 {北}+{俱盧}+{洲}로 분석되며, 범어로는 'ūtara-kūru'이

다. 불교사전에 따르면 “수미산의 북쪽 제 7금산과 大鐵圍山 사이에 큰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人趣 등이 사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달리 鬱多羅究留라 말해지기도 한다.

* úttara ⇒ upper / higher / northern

* kúru ⇒ N. of the progenitor of the Kurus

• 南瞻部洲(제5존자 거처지)

달리 閻浮提라고도 하는데, 이 南瞻部洲는 {南}+{瞻部}+{洲}로 분석할 수 있으며, {瞻部}는 범어로 ‘gambū’이다. 불교사전에는 “수미산 남쪽에 있는 대륙”으로 설명하고 있다.

* gambū ⇒ rose-apple(tree)

• 耽沒羅洲(제6존자 거처지)

문제가 되는 거처지로, 아직 범어로 된 불경을 접하지 못한 이상 이에 해당하는 범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일단은 범어를 □□(□)로 표기하고, 이 □□(□)를 음寫한 것이 ‘耽沒羅’이니 이는 다음과 같이 음寫가 가능하다.

耽 ⇒ tVm = tam, dam

沒 ⇒ mVl = mul, mal

羅 ⇒ rV = ra, la V:모음

여기서 ‘沒’의 음사 형태인 {mVl}에서 {m}을 ‘耽’의 종성 {m}에 배당할 수 있고, {}은 ‘羅’의 초성 {r}에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한 결과 {(m)V(l)}에서 {V}(모음)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 범어인 □□(□)는 다음과 같은 tamála, damara, tāmra 등 세 어휘로 압축할 수 있는데(이 세 어휘는 범어 사전의 표제어로 올라 있다.), 이 어휘들이 지닌 의미는 아래와 같다.

- * tamála ⇒ N. of a dark-coloured tree
- * damara ⇒ astounding / extraordinary
- * tâmrá ⇒ ① copper-coloured, dark red
② eruption with dark red spots
③ copper

사전의 뜻과 음譯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 ‘耽沒羅’는 범어 ‘tâmrá’의 음譯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의 거처 장소는 ‘흙 검붉은 곳(땅)’이라는 의미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 僧伽茶洲(제7존자 거처지)

이 僧伽茶洲는 {僧伽茶}+{洲}로 분석되며, {僧伽茶}는 범어 ‘samgata’의 음역이다.

- * samga-ta ⇒ alliance based on mutual friendship /meeting
/association

• 鉢刺拏洲(제8존자 거처지)

鉢刺拏洲는 {鉢刺拏}+{洲}로 분석되며, {鉢刺拏}는 범어 ‘vágra’의 음역이다. 그 의미는 이미 제8존자의 이름에서 확인된 바 있다.

• 香醉山中(제9존자 거처지)

달리 香山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한나라에서 말하는 곤륜산이다. 불교 사전에는 “無熱池 북쪽에 있는 염부제주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범어로는 ‘gandhá-madana’이다.

- * gandh-á ⇒ smell /fragrance /odour
- * mad-ana ⇒ sexual love /god of love

- 三十三天(제10존자 거처지)

불교사전에 따르면 “육계 6천의 제2천인 도리천(忉利天)”이다. 범어로 ‘trayastrimsádevá’이다.

- * trayas-trimsá⇒thirth-third

- * dev-á⇒heavenly /divine

celestial /deity /god /divinity

priest

- 필리양구주(畢利 麗瞿洲)(제11존자 거처지)

범어 priyáṅgu로 보인다. ‘바다’라는 의미로, 探海鉤(creeper)이다.

- * priyáṅgu⇒ creeper

- 半度波山(제12존자 거처지)

한역된 이름으로, 半度波山을 말하는데 어떤 곳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廣脇山中(제13존자 거처지)

한역된 이름으로, 廣脇山을 말하는데 어떤 곳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可住山中(제14존자 거처지)

한역된 이름으로, 可住山을 말하는데 어떤 곳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鷲峯山中(제15존자 거처지)

鷲峯山中은 ‘靈鷲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산은 북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부근에 있다. 鷲靈들이 많이 있어서 된 이름이라고도 하고, 산의 모양이 독수리의 머리와 비슷하므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범어로는 ‘grídhra-kūta’이다.

- * grídhra-kūta⇒ N. of a mountain(vulture-peak)

• 持軸山中(제16존자 거처지)

이 持軸山中은 持軸山으로, “九山の 하나로, 山頂 모양이 마치 車軸처럼 생긴 데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범어로는 'isá-dhará' 이다.

* isá⇒ able to dispose of /entitled to/ capable of

* isá-akala⇒ Himalaya

* dhar-â⇒ earth(130)

3

이제 열여섯 존자가 거처했던 곳의 성격을 알아볼 차례다.

앞에서 밝혀진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존 자	거 처 장 소	성 격	존 자	거 처 장 소	성 격
1	수미산 서쪽	추상성	9	곤륜산	추상성
2	카스미라 지방	구체성	10	도리천	추상성
3	수미산 동쪽	추상성	11	바다	추상성
4	수미산 북쪽	추상성	12	반도파산	추상성
5	수미산 남쪽	추상성	13	광협산	추상성
6	흙 검붉은 곳	추상성	14	가주산	추상성
7	집회 장소	추상성	15	왕사성 부근	(추상성)
8	금강	추상성	16	지축산	추상성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가 확인한 것은 제2존자가 거처했던 '카스미라' 지방과 제15존자가 거처했던 '왕사성' 부근 두 곳뿐이다. '왕사성'도 사실은 불교에서는 '중인도 마가다나라의 서울로, 지금의 피트나시 남방 비하르 지방의 라지기르가 그 옛터'라고 하여 확실한 위치가 아니다. '수미산'도 마찬가지다. 불교세계설에서 세계의 한가운데 높이 솟아 있는 산으로, 금·은·유리·파리의 사보로 되

어 있으며, 일곱 개의 금산이 둘러 있다고 관념하는 산이다. 나아가 수미산과 칠금산 사이에는 일곱 바다가 있다고도 한다. '곤륜산'도 중국 설화에 등장하는 산으로 중국 서쪽에 있는 신성한 산으로 관념한다. '도리천'도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는 곳이다.

이렇게 본다면 16존자가 거처했던 장소는 대개는 관념의 장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가 된 '耽沒羅洲'도 앞에서처럼 범어 'tāmra'의 음역이고, 그 의미를 "땅이 구리빛처럼 검붉은 곳"이라고 확정한다면 결코 제주도일 수는 없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그 음만 '탐라'일 뿐이다. 물론 범어 'tāmra'를 ②처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검붉은 곳"이라는 설명이 혹 제주도 한라산의 폭발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의문으로 제시한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면 '耽沒羅'는 제주도라는 주장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혹 {洲}에 이끝이어 '洲'가 '섬 주'이니 '섬'이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訓蒙字會』에는 '뭇 주' 그리고 『類合』에도 '물곤(又) 주'로 되어 있다. 반면에 『新增類合』에만 '자근 섬 저'로 읽고 있어서 반드시 '섬'으로 이해하기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5존자가 거처했던 곳인 '南瞻部洲'에도 '洲'가 붙어 있다. '南瞻部洲'는 "수미산 남쪽에 있는 대륙"으로 '섬'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洲'는 일정한 구역을 뜻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온당하지 않은가 한다.

결국 '耽沒羅洲'는 범어 'tāmra'의 음譯이며, '흙 붉은 장소'를 뜻하는 추상적인 지역으로 제주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참고문헌〉

『불교학대사전』, 홍법원, 1990.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1918.

田溶新 편, 『韓國古地名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 全在星, 『梵語文法學』, 한국빠알리성전협회(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1998.
- 『尊者庵址』(제2장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고창석),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도, 1996.
- 『한국불교대사전』, 동국대 역경원, 1999.
- A.A. Macdonell, *A Practical Sanskrit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中村 元, 『佛教語大辭典』, 東京書籍(株), 1981.